KiRi Weekly 2013.7.29
글로벌 이슈

출구전략 시행 예고로 인한 신흥국의 환율 리스크 대응

이아름 연구원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미 연준의 출구전략 가능성 시사로 5월 이후 브라질, 인도 등의 달러대비 통화가치와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1)]
-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2013년 7월 18일 동유럽의 리투아니아를 방문 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에 신흥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IMF는 브라질과 러시아 등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3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보다 하향 조정함.
  - 2013년 7월에 발표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세계경제 전망치보다 러시아 0.9%p, 브라질 0.5%p, 중국 0.3%p, 인도 0.2%p 각각 하향 조정됨.

■ (인도)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란으로 루피아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함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금리 인상, 국채 매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함.

- 달러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양적완화 발표 전 56.50 루피(5월 13일 기준)에서 60.36 루피(7월 13일 기준)로 두 달간 6.8% 하락하였음.[2)]
-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을 하루 7,500억 루피아(약 14조 1,200억 원)로 제한하고 긴급자금대출(marginal standing facility) 금리는 8.25%에서 10.25%로 2p% 인상하였음.[3)]
- 또한 시중은행들의 일일 지급준비금 확보비율(CRR: Cash Reserve Ratio)을 기존 70%에서 99%

1) 채원영(2013), 「출구전략 시행의 신흥국에 대한 영향 분석」,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 Gloal Insight 2013년 7월 15일에 업데이트 된 자료 기준.
3) Wall Street Journal.

로 강화하였고, 2주마다 시중은행들의 CRR을 인도중앙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을 발표함.[4)]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중 유동성을 제한하여 루피 가치의 급락을 막기 위해 인도 통화당국은 매주 정기적인 1,500억 루피아의 채권경매(bond auction)와 더불어 2013년 6월 18일 발행한 1,200억 루피아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각하겠다고 밝힘.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달러공급 등을 시행하였음.

-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에 따르면 2013년 7월 10일까지 올해 들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
  - 2013년 3월 기준 7.25%인 기준금리가 4월 7.50%, 5월 8.0%, 7월 8.5%로 인상되었음.
- (터키) 터키 중앙은행은 7월 23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6.50%에서 7.25%로 0.75%p 인상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6월 한 달 동안 70억 달러(약 7조 8,260억 원)에 이르는 보유외환을 시장에 공급하였지만 환율상승으로 루피아 가치는 달러대비 1만 24루피아(7월 15일 기준)까지 하락하였음.[5)]

신흥국의 유동성 축소가 신흥국 성장 위축과 세계 외환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제기됨.

- 신흥국 보유외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 국채를 일제히 매각하면 미국 채권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1990년대 말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중국을 제외한 신흥 12개국의 외환보유액은 총 2조 9,700억 달러로 지난 4월 말 3조 300억 달러에 비해 2.2% 감소함.[6)]
  - 2개월간의 감소폭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11월-12월 이후 가장 큰 숫자임.

(IMF, WSJ 등)

4)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5)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
6)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